

### 제3장 하와이 노동이민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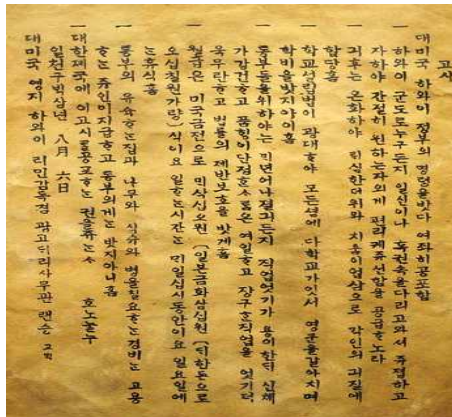
동석기는 며칠간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면서 고민하다 보니 “농토가 없는 사람의 농촌 생활은 소작농(小作農) 신세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돈을 모아 논과 밭을 되찾아서 부모님에게 돌려드려야겠다.”라는 목표를 정한 후에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자(勞務者) 즉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daily worker) 생활을 시작하였다.

동석기는 워낙 근면성실(勤勉誠實)한 사람이었기에 힘든 일에는 이를 악물고 묵묵히, 작은 일에는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끈질긴 노력의 결과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어느 정도 재산(財産)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농토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 수중에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악착같이 모아 놓은 물질도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큰 꿈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동석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선의 중심지인 한양이 ‘너무나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또한, 한양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화(開化)의

바람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결국, 동석기는 고  
민 끝에 부모님에게 농토를 사드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마음을 정리하게 된다.

이때 동석기는 주변 사람들과부터 하와이(Hawaii)  
‘노동 이민자’(labor migrant) 즉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sugar cane plantation)에서 일할 노무자를 모집한다  
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벽보로 부  
착된 이민 모집공고(Notice of recruitment for Hawaii  
emigration)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였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6.] 그가 보았던 1903년 8월 6일  
(목) 자로 각처에 붙여진 이민 모집공고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이민 모집공고, 경인일보(2013.8.15, 하와이 이민 1)

(1) 하와이 군도로 누구든지 자기 한 몸이나 혹은 한집안 식구를 데리고 와서 정착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겠다.

(2) 기후는 온화하여 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으므로 각 사람의 기력과 체질에 알맞은 곳이다.

(3) 학교 설립법이 까다롭지 않아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않는다.

(4) 농부들은 매년 어느 절기든지 직장을 얻기가 쉬운데 신체가 강건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안정된 직업을 오랫동안 얻기가 특별한 어려움이나 거리낌이 없고 법률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월급은 미국 금전으로 매월 15달러(일본 금화 30원, 대한 돈으로 57원 정도)이고, 일하는 시간은 매일 10시간 동안이며,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6) 농부가 생활하는 집과 땀감으로 사용하는 나무와 식수, 병을 치료하는 경비는 고용하는 주인이 지급하고 농부에게는 받지 않는다.

(7) 대한제국에 이 고시를 공포하는 권한을 준다.

=호놀룰루 1903년 8월 6일 대미국 영지 하와이 이민 감독 겸 광고 대리 사무관 렌승 고백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으로의 이민은 우리나라 ‘최초

의 노동 이민(labor migration)’으로 우리나라 이민사(immigration history)를 정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와이 노동 이민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주인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에 조선에서 농장에서 일할 인부들을 모집하여 하와이로 데려가기로 계획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이 결성했던 조합을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주협회(Hawaii Sugar Planters’ Association, HSPA)’라고 한다. 이 사탕수수농장주협회는 1902년 비숍(Charles R. Bishop)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그에게 전권을 위임한 후 조선에 파견하였다.

당시 조선의 형편은 몇 년째 계속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한 타격과 콜레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때였다. 그렇지만, 정부와 조정의 고위 공직자들은 민중들이 지쳐서 죽어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반면에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아 돈을 모으고, 더 많은 뇌물을 받기 위해 새로운 부처(部處)를 만드는 일에만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들여 불필요한 예식과 잔치를 베풀면서 허랑방탕(虛浪放蕩)한 생활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이때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주협회’의 대표인 비숍이 조선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먼저 미국 북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소속 의료선교사이며,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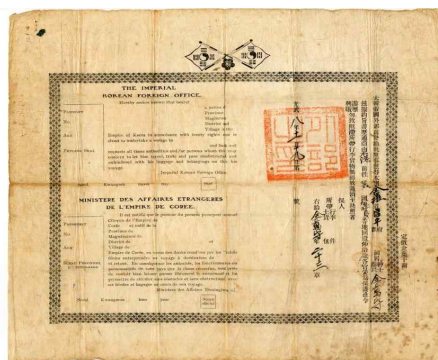
공사(公使)인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 안련(安連)]을 만났다. 비숍은 알렌에게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상세히 설명하고 모든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알렌은 흔쾌히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숍을 데리고 고종 황제를 알현(謁見)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하여 윤허(允許)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백성들을 하와이에 보내서 그곳에 ‘영토나 미개척지를 개척하여 조선의 이주와 정착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척식사업(拓殖事業)과 신문화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계획(a wise policy)입니다.” [강준만(2007), 『한국 근대사 산책』 3권, 인물과사상사, 356.]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주협회’ 회장인 비숍은 알렌 미국 공사의 도움으로 고종의 윤허를 받은 후 알렌과 함께 ‘대한제국 정부’ 대표와 회동하여 이민조약(移民條約)을 체결하였다.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3권, 355~356.] 이로써 조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떠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대한제국 정부는 그 후속 조치로 왕실 업무와 왕실 부속기관을 총괄하는 ‘궁내부(宮內府)’의 부속기관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의 ‘수민원(綏民院)’을 설치

하였다. 그리고 수민원으로 하와이 노동 이민에 관한 모든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고종 39년 1902.11.16.), ‘궁내부 관제 중 수민원 증치 건을 반포하다.’]

수민원은 1902년부터 수학여행이나 ‘농업, 공업, 상업’ 관계의 여행 등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집조(執照) 즉 여권(旅券)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또 여행자들에 대한 단속 규정을 엄격히 정하는 일을 관할(管轄)하는 정부 기관의 임무도 수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수민원의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로는 칙임관(勅任官)[총재 민영환(閔泳煥), 부총재 민상호(閔商鎬), 감독 각 1인], 주임관(奏任官)[총무국장 서병규(徐丙珪), 참서관 3인], 그리고 판임관(判任官)[주사 6인] 등을 두었다. [『조선왕조실록』(고종 39년 1902.11.23.), ‘민영환에게 수민원 총재를 겸임시키다.’]



집조(여권), 인천일보(2017.10.19, ‘근대 이민의 출발지 인천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綏民院’을 ‘수민원’과 ‘유민원’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 『기호일보(畿湖日報)』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綏는 편안하다는 뜻을 지닌 ‘수’로 주로 읽히지만, 깃발이 늘어진다는 뜻의 ‘유’자로도 읽히고 있으며, 윤치호의 영문일기에 ‘Yu Min Won’으로 표기된 것에 비추어 ‘유민원’이라고 읽는 것이 더욱 올바른 것이다.” [『기호일보(畿湖日報)』(2015.10.26.), ‘이민자들 일본 땅 거쳐 신대륙으로’]

그런데, 기호일보뿐만 아니라 ‘한국이민사 박물관[韓國移民史 博物館,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1가)]’ 등 하와이 이민에 관한 기사를 소개한 각종 언론의 상당수도 ‘유민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자료와 그곳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각종 사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수민원’이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3월,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국가 기구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모든 기관과 문헌에서 ‘유민원’이 아닌 ‘수민원’으로 통일하여 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같이 필자는 ‘수민원(綏民院)’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대한제국 정부’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주협회’ 간에 이민조약(an immigration treaty)을 체결하고 수민원까지 설치한 후에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희망하는 자를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냈지만,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지원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알렌 미국 공사의 부탁을 받은 미(북) 감리교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소속 선교사로 인천 최초의 감리교회로 알려진 내리교회 담임 목사인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 조원시(趙元時)]가 하와이 노동 이민 홍보대사(honorary ambassador)로 나섰다. 존스는 제물포, 강화(江華) 연안, 해주(海州) 지역 등을 순방하며 이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간 곳마다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세계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 조선 사람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인간 최고의 지상 낙원(地上樂園, paradise)이라고 일컫는, 하와이에 이민 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3권, 355.]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한 존스 선교사의 영향을 입은 탓인지는 몰라도 당시 모집된 하와이 노동 이민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대거 지원하다 보니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수적 우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노동 이민 지원자들이 모집되자 이들을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 공급하는 역할은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과는 알렌 미국 공사의 추천을 받고, 대한제국 정부 승인을 받은 미국인 데של러[David W. Deshler, ?.~1927, 대시라(大是羅)]가 주관하게 되었다. 이어 데של러는 동서개발공사(The East-West Development Company)를 설립하여 하와이 이민 대행 업무를 시작하였다. 동서개발공사는 제물포에 본점을 두고 주로 한양, 제물포, 부산(釜山), 그리고 원산(元山) 등 항구도시(개항장 지역)에 지점을 설립하여 이민자 모집에 온 힘을 쏟았다. [『한국 이민사 박물관 전시자료』; 『인천시 역사자료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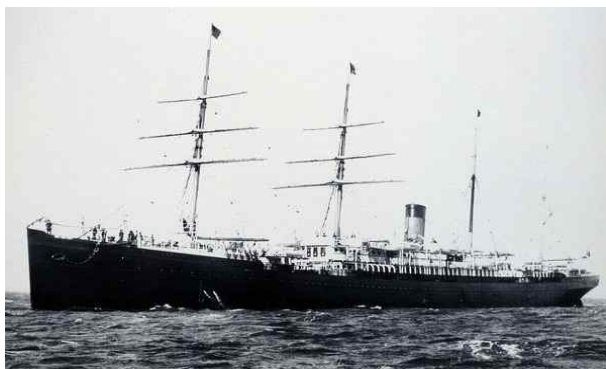
또한, 모집된 이민자들을 수송(輸送)할 이민선 출항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는 사탕수수농장주협회 회장인 비숍이 담당토록 하였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던 하와이 노동 이민은 1902년부터 1905년 7월 초까지 남자 성인 6,048명, 여자 성인 637명, 어린이 541명 총 7,226명이 65개 선편을 이용하여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하와이 노동 이민의 최초 이민 단은 1902년 11월 15일(토) 고종의 윤허를 받아 수민원 총재 민영환 명의의 집조(여권)를 발급받은 121명[통역 2명, 내리감리교회 교인 약 50여 명 포함]이었다. 이들은 12월 22일(월) 일본 우선회사(郵船會社) 소속인 겐카이 마루(玄海丸, Genkai Maru)에 승선하여 제물포(濟物浦, 인천)를 출발하였다. 그리고 12월 24일(수) 일본 나가사키(長崎, Nagasaki)에 도착하여, 검역 사무를 보기 위해 주요한 항구나 공항에 마련된 검역소(檢疫所)에서 신체검사와 예방접종(vaccination)을 받았다.

최초 이민 단은 신체검사 결과 19명의 탈락으로 102명[남 54명, 그들의 부인 21명, 자녀들 25명, 통역 2명]으로 확정되었다. 이어 102명의 이민 단은 일본 고베(神戸, Kobe)에서 최초 이민선인 미국 동서양 기선회사(Occidental and Oriental Steamship Co.) 소속인 갤릭(S. S. Gaelic)호에 승선하여, 1903년 1월 13일(화) 하

와이 호놀룰루(Honolulu) 항에 도착하였다. 깬릭호는 1885년에 아일랜드(Ireland) 벨파스트(Belfast)에서 건조된 4,206t 규모의 배로, 모두 6회에 걸쳐 조선인 이민자를 수송했으나 1905년에 매각되어 이름이 칼라오(Callao)로 바뀌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깬릭호.]

일본에서 승선하여 22일 만에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최초 이민 단은 보건당국(검역소)에서 일본에서와 같은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깬릭호에서 승객들에게 제공했던 불결한 식수로 인해 16명이 안질(眼疾, eye disease)에 걸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다. 그런데도 하와이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정상참작(情狀參酌)과 같은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행성 ‘전염병(傳染病, communicable disease)’이라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16명을 강제 송환(強制送還)토록 조치하였다.



최초 이민선 깬릭호, 국가기록원

이러한 힘든 과정들을 거쳐 최초 이민 단은 33명이 탈락한 가운데 86명[남자 48명, 부인 16명, 자녀 22명]으로 최종 확정되어 이들만이 상륙 허가를 받으므로 이민사의 기록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되었다. 이어 긴 여행으로 인해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최초 이민 단 86명은 협궤 열차(train with narrow gauge, 소형의 기관차)에 승차하여, 오하우(Oahu)섬 와이알루아(Waialua) 농장의 모쿨레이아(Mokuleia) 캠프(camp)로 이동하여 이민 노동자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국 이민사 박물관 전시자료』; 『인천시 역사자료관 자료』;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3권, 356.]

그렇다면, 노동 이민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될 주인공인 동석기는 무엇 때문에 하와이 이민 노동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였을까? 그것은 그가 읽어 보았던 다음과 같은 이민 모집공고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1) 하와이 군도로 누구든지 자기 한 몸이나 혹은 한집안 식구를 데리고 와서 정착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3) 학교 설립법이 까다롭지 않아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석기는 “어느 곳이든 섬마을마다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는 영문을 가르치는데, 학비를 받지 않으므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민을 결심한 것이다. [서재룡(2012), 『한국교회사 속의 환원운동가 동석기』, 『인문과학논집』 24집,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2.]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